십자가 맥가이버

(눅19:11-27)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맥가이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맥가이버' 하면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미국 ABC TV 방송에서 방영한 시리즈물입니다.
피닉스 재단이라는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첩보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요원 중에 맥가이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가이버는 다른 첩보원들과는 달리 총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맥가이버칼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요즘도 그 다용도 칼을 맥가이버칼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가 그 칼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을 다양한 화학과 물리학, 이런 과학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 모든 소재들을 다 무기화하고 도구화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자기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나갑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 맥가이버를 상상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과학적인 지식을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활용해서 무기로 삼고 도구로 삼아서 그 위기를 탈출합니다.

신앙인도 맥가이버입니다.
그런데 어떤 맥가이버냐 하면 모든 상황을 다 훌륭하게 대처하고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구를 활용하는 게 다릅니다.
신앙인은 맥가이버로서 오직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어떠한 소재가 주어졌든지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 하나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 다 훌륭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어찌 보면 완벽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닥쳤습니까, 자녀 문제의 위기, 부부관계의 위기, 사업상의 위기, 업무를 수행할 때, 사명을 수행할 때,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 하나로 대처해 나가는 맥가이버, 이게 바

로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이라는 얘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열 므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구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열 므나를 맡겨요.
그리고 달란트에 비하면 이 므나라고 하는 돈의 단위는 엄청나게 작은 돈의 단위이고 열 명의 종에게 다 똑같이 한 므나씩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은 왕위를 받으러 멀리 타국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해요.
헤롯 대왕이 자기의 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에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왕권을 받으려면 로마까지 가서 로마황제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팔레스틴 지역을 아버지로부터 분할 받았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의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갔어야 되었고, 또 14절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왕권을 허락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켈라오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그런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셨건 그렇지 아니 하셨건 상관없이 이 비유는 이 비유 나름의 독창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 므나의 비유는 한 므나씩을 맡겼는데, 그 한 므나를 잘 활용해서 열 므나를 남긴 자가 있고, 다섯 므나를 남긴 자가 있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한 므나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자가 있어서 그를 내쫓는다 이 말입니다.
한 므나 마저 빼앗아 열 므나 남긴 자에게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보다는 더 단순하게 주어진 한 므나를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에 비유의 초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활용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주어지는 한 므나가 도대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오해를 합니다.
주어진 재능, 아니면 앞에 부자청년이야기와 삭개오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조적이잖아요? 부자청년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좇으라는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연관 지어서 한 므나씩 준 것이 내게 주어진 재력 혹은 소질과 재능,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의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했다고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언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열 므나를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가 주어지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은 당장의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 바깥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대변혁과 혁명을 일으키면서 선민의 나라가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좇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이들은 땅에서 한 판 벌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니까.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 왕처럼 땅을 떠나시는 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게 한 므나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뒤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낱낱이 살펴봐서 남겨놓으시고 간 한 므나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의 결론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처음으로 입을 열어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나사렛예수가 삼일만에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이 평생을 바쳐 선교를 하면서 전한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뒤져봐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긴 한 므나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므나를 활용하느냐 마느냐는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활용하느냐 마느냐의 이

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은 이제 막 혁명적인 대변혁을 통하여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오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만 남겨주고 떠나갈 건데, 시간과 공간의 이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변혁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아무런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너희에게 십자가 하나만이 주어질 것인데, 그 십자가를 활용하는 자와 활용하지 않는 자의 구분을 해내기 위해서 나는 떠나간다.'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그냥 이 세상의 메시아통치를 시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활용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려고 떠나가신 거라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마태복음에서 재림장이라고 부르는 24장에 예언된 대로,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다 떨어져나가요,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져 버리고 순식간에 지구의 이쪽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메시아의 국가를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떠나가시고 유보기간을 두십니까?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시려 한다는 얘깁니다.

자, 맥가이버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물들을 활용해서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서 위기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맥가이버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남겨주신 한 므나인 이 십자가를 활용해서 그 상황에 대처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활용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활용할까요?
이게 바로 제로원(0,1)의 활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흔한 문제인 돈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나갑니까?
우리는 맥가이버입니다, 십자가 맥가이버에요.
십자가를 활용해서 대처해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재정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제로가 됩니다, 걱정 제로, 염려 제로, 돈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 제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재정문제에 대해 죽게 되면, 돈 때문에 더럽혀진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린 피를 통하여 깨끗해지면서 반대방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죽지만, 반대로 마음 안쪽에 있는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제로원(0,1)이라는 겁니다.
죽는 게 제로이고 살아나는 게 1입니다.
끄는 게 제로이고 켜는 게 1입니다.
마음이 돈 문제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삽니다.
천국 쪽으로 살아납니다.
돈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얘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법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천국을 법니다, 이게 바로 열 므나를 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십자가를 활용한 맥가이버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죽어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벌어서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지금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제로가 되었지 않아요? 그때 그 재정문제가 덮쳐있는 내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켜집니다.
나 하나가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제로가 될 때 두 개가 켜집니다.
세상에 대해 꺼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여 켜지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음으로 꺼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켜지게 됩니다.
나 하나가 세상에 대해 제로 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켜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켜집니다.
그래서 버는 거예요, 왜 버는 거라고 하느냐?
열 므나라고 할 때 므나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므나의 소재가 은이에요, 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사건의 소재가 뭡니까?
므나의 소재가 은인 것처럼, 십자가사건의 소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므나가 은인데, 그 한 므나를 가지고 열 개의 므나를 벌었습니다, 다섯 개의 므나를 벌었습니다.
은 열 개와 은 다섯 개를 벌었다는 얘기에요.
십자가의 소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마음에 꼭 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하늘 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받습니다.
천국을 받게 됩니다, 같은 소재에요.
십자가를 이루고 있는 소재와 같은 소재를 세상에 대해 죽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주어지면서 받게 됩니다.
행복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넘쳐버리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죽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법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당장 통치를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재림의 기간까지 시간을 두신 이유는, 십자가를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않는가를 보시려 하신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므나인 십자가를 가지고 모든 인생의 상황들에 다 대처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더 여러 개를 벌어들입니다.
그 과정이 재림 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이 귀인이 왕권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한 므나를 받고 활용하지 않은 자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져야 될 세상일에 대해서 내가 켜진 겁니다.
내가 세상일에 대해서 밝히 켜지면서 하나님의 왕권이 부인되어버립니다.
그런 자들이 십자가를 빼앗길 것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까지 빼앗길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더 많은 마음을 벌어들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까지 싹 제거해버려서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 얘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사장시켜 놓는 겁니까?
부활절 전, 고난주간에 잠깐 먼지 털어가지고 십자가 기억해내고, 세례 받을 때 십자가 기억해내고, 죄 사함 받았다고 아멘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는 돈 벌러 가서 전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테크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자녀교육에는 책에서 나오는 양육법을 그대로 실천해보려고 하고 있고, 전부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다 도용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 맥가이버가 되지 않는 겁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십자가를 활용하는 것처럼 작은 일이 세상에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일보다, 자녀 키우는 것보다,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내 몸 돌보는 것보다, 스펙 쌓는 것보다, 영어 잘하는 것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작고 쉬운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활용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주어졌을 때, 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웁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십자가 붙잡고 그 돈 문제에 대해 죽는 게 쉬웁니까?
십자가를 활용하는 일이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맥가이버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십자가를 활용하면서 대처해나가는 겁니다.
대처해나가는 방법은 제로원의 방법입니다.
주어진 이 지구 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늘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돈 문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꺼져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켜지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문제 건강문제,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활용하세요!
주어진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소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려면 십자가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린 이 세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많이 여러 개 여러 개가 내려와서 쌓이고 표현되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맥가이버! 은총의 약속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까지 쌓아올린 스펙도 아니고, 나의 선천적 재능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든 국면에 대해 활용하는 십자가 맥가이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